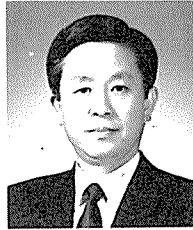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회고

요즘 세상에 메인 메모리가 32K BYTE인 컴퓨터를 대형 컴퓨터라고 한다면 어리둥절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32K BYTE 메모리라고 하면, 요즘 학생들의 책상 위에 놓인 PC 기본메모리의 기억용량의 125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년에 한국금융기관 전산화의 모태였던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현금융결제원의 전신)가 도입한 UNIVAC 9400이나, 같은 해 외환은행이 도입한 NCR CENTURY 100의 메모리가 모두 32K BYTE였으며 이 기기들을 당시에는 누구나 중·대형 컴퓨터로 보았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에는 KIST있던 CDC 3300외에는 기획원 서울공대등에 있던 컴퓨터의 용량이 겨우 8KB 정도였기 때문이다. 기기의 크기도 거창하여 CPU와 주변기기들이 큰 건물 1개층을 모두 차지하여 그 위용을 자랑하였으며, 전자계산본부의 컴퓨터 가동식은 국가적인 행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각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더우기 그때 각 은행들은 독자적으로 컴퓨터를 보유하지 못했으므로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에 있는 32K BYTE 컴퓨터 1대를 가지고 한국·산업·기업·국민·주택은행·농협등 전국 은행들과 전 시중 은행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할당받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각 은행들의 모든 전산업무를 개발·적용하였다.



李準祥
한국외환은행 사무관리부장

우리나라 은행업무 전산화의 본산으로서 절대적 역할과 위치에 있었던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는 본인의 인생행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학과를 나와 은행 조사부에서 근무하던 내가 생각도 못했던 컴퓨터와 인연을 맺게 되고, 은행 생활중 많은 기간을 이 부문에 종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69년 9월 5일 금융기관 전자계산본부 설립준비위원으로 파견나가 1개월간의 설립 작업을 마치고 10월 1일부터 은행 연합회 건물에 현판을 걸고 근무를 시작한 것이 컴퓨터와 인연을 맺은 계기가 된 것이다.

전자계산본부의 설립목적은 각 은행전산요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독자적 전산업무 능력배양, 업무의 공동개발 및 적용, 전산부문의 조사연구, 전산기기 도입 승인 및 심의 등이었다.

지금 당행이 보유한 CPU 2대의 총용량이 하드웨어중 메모리 부분이 630MB 이므로 32KB와 비교해 2만배 커진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눈부시게 발전해 가고 있다. 1984년 BOS-TON 대학 유학시절 LOTUS 1, 2, 3을 처음 사용해보고 경이감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요즘은 WINDOWS, 각종 DBM S, LAN, GL, CASE 등 각종 소프트웨어의 눈 부신 발전을 보며 H/W, S/W의 미래 세계를 상상해 본다.